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 국정브리핑과 KTV 공동 인터뷰에서 밝혀

국정브리핑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새로 임명된 장관의 소신과 공직관, 정책운용 방향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다음은 국정브리핑과 정책방송 KTV가 김성진 장관을 공동 인터뷰한 내용 중 해운 및 항만부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편집자 주)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정브리핑과 정책방송 KTV 공동 인터뷰에서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실적과 미래 설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의 자문도 구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실천전략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부를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현장이 곧 정책'임을 강조, 발로 뛰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장을 중요시하는 것은 현장에 우리의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정책이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업이 상당히 방대하여 현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외되고 어려운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일본 물류업체 유치

▶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시장 진출



을 위한 물류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해양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국제 물류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항만시설과 물류시스템의 확충, 대형 선사의 운항패턴 변화로 국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공·항만 시설 확충 등 기존 동북아 허브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나아가 국제네트워크 형성

등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허브화 전략을 통해 중국·일본의 기업과 화물을 우리나라로 모으는 정책 추진이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새롭게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물류업체를 우리 항만 배후단지로 유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 전략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는 한편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물류 전반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항만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항만노무 독점권이 100년 만에 폐지됐다. 항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해 체결한 노사정 협약은 상용화되는 항운 노조원의 완전고용과 정년, 그리고 현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노조원 배분방안, 임금체계 설정 등 상용화를 위한 세부 협상과정에서도 노조원의 직업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내년 시행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연안, 섬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상에서 비롯되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다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갯벌 및 해수욕장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나.

= 바다 오염원의 80%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수 및 폐수, 생활하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2007년 하

반기 중 시범 도입하고, 점차 다른 해역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특정해역의 환경관리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허용량을 산정해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량 이내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응하여 투기량을 낮출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투기해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별로 수질 등급을 조사·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용 펜스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갯벌 체험행사로 초래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용인원 산정 등 행사기준을 마련하고, 갯벌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이미 수립된 '갯벌 보전 기초계획'을 토대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 위그선 2010년까지 개발

▶해양 광물자원 개발 및 제2의 남극과학기지 건설 추진 등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현안들을 설명해 달라.

= 해양과학기술은 특성상 부존자원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예산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이를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 이용, 해양에너지 실용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동북아 물류 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톤급 대형 위그선을 민관 공동으로 2010년까지 개발해 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력·조류·해상풍력 등 풍부한 청정 해양에너지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민자유치 제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해운수송망 확충과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해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 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고 반세기만에 남북한 간 해상항로가 복원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남북한 해상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설립되기도 했다.

앞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대비해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개최 및 남북해운항만 전문가 상호방문 지원 등 남북 해운수송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현재 도로로 운송되고 있는 물량의 1%만 해양운송으로 전환되더라도 막대한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및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감안해 화물 선사에 대한 선박담보보증기금을 설치, 영세한 연안선사가 선박

확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

▶법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

=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로코, 폴란드가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상경쟁국들의 경제력·외교력을 감안할 때, 2010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경험을 잘 살리면 우리나라가 박람회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유치 전략으로는 국제 수준의 박람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민관합동의 중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유치경쟁 예상국 및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성향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반드시 유치해 내겠다.

김성진 장관

은 공직생활 32년 동안 줄곧 경제부처에서만 근무해온 경제통으로, 지난 1998년 예산청 사회예산국 국장으로 재직시 4500억 원 규모의 해운항만 예산을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으로 늘렸던 그가 앞으로 펼쳐갈 해양수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김 장관은 평소 생활철학으로 원불교 신자답게 '상생선연' (相生善延)의 마음을 담고 있다. 좋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요즘말로 하면 윈-윈 정신과 같은 뜻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는 삶을 강조한다.

김 장관은 조직의 가장 큰 덕목으로 조직원 간의 화목을 꼽으면서 앞으로 해양부 가족들은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 바탕에 둔 행정을 펼침으로써 고객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희망했다.

중기청장 재직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열성을 보였던 김 장관은 수산물을 다루는 시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산지와 직결되는 유통망 구축, 어촌 종합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밑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남 통영이 고향인 김 장관은 군 생활도 해군 중위로 예편했을 만큼 바다와의 인연이 깊다. 해양수산의 수장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광대한 해양경영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멋진 항해가 기대된다.